

August Konkell 박사, 잠언, 세션 17

© 2024 August Konkell 및 Ted Hildebrandt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l입니다. 17회기 '문명화된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잠언 27:23-29:27.

히스기야 궁정 사람들에게 속한 것으로 알려진 헌금의 결론을 다루는 잠언에 관한 짧은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28장과 29장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이 두 장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모두 좋은 사회를 위해 좋은 정부가 필요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다소 독특한 27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28장과 29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과 아주 비슷한 것은 없으며,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잠언 23절부터 27절은 좋은 사회와 문명화된 삶에 관한 이 전체 부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들은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아주 평범한 일로 오는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자, 그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글썄,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필수적인 것, 즉 음식과 의복에 관한 것입니다. 둘 다 양이 제공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알고, 그것을 따르는 방법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건강하고 부유한 사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특별한 상황, 우리의 장소,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더 많이 찾는 데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잠언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창고에 쌓아 두는 식량은 언제나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꾸준한 공급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급이 될 만큼 미리 비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매일, 매 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마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푸른 풀을 계속 보내시고 양과 염소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량과 우리의 밭과 양 떼를 잘 돌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단지 음식과 의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공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은 규칙, 즉 사회의 파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나열한 이 모든 속담은 이런 종류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의의 통치에는 영광이 있으나 악인의 통치는 그 안에 있는 선한 사람들을 가리우느니라 .

그러니까 다들 나쁜 것 같아요. 28절 12절입니다. 그리고 28:28에서도 같은 생각이 다시 반복됩니다.

의인의 통치에는 보상이 있다. 그것은 선한 사람을 가능하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구절 뒤인 29장 2절에서는 의인의 통치의 행복이 나옵니다.

의로운 통치는 선한 사람을 가능하게 하지만, 악한 통치는 선한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장의 끝 부분인 16절에서는 의인의 통치의 질서가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통치가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사회가 파괴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든 이 두 장 내의 간격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든 동일한 간격이 아니지만 반복되는 모티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모티브로서, 그들은 우리가 이 장들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장은 우리가 여기 잠언에 대한 대화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 토라의 가치, 즉 신성한 계시에 따라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 11장에서 그러한 가치 중 일부를 강조하는 구절을 골랐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보안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정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크고 큰 질문입니다. 그냥 무엇입니까?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올바른 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실성은 부모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잘못이 항상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규칙의 반대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차드의 한 선교사가 자신이 본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드의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스스로를 돕기 위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계약에 갇힐 때 불성실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거부되는 곳입니다. 재물에는 안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에 대한 자기기만. 인생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탐욕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내 자신에 대해 발견하는 것은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으면 그것 없이는 꽤 잘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끔찍한 불의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욕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잠언은 공허의 복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주제는 이전에 언급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때때로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 기회입니다 .

탐욕에는 그 자체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생명을 빼앗는 것은 구덩이로의 비행으로 이어집니다. 옳은 일을 하는 척하는 것은 구덩이로 이어진다.

뺨 한 조각을 편애하면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잠언은 매우 가슴 아픈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마도 최악의 경우, 부모를 약탈하는 것은 최악의 파괴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섹션은 운명의 대조로 마무리됩니다. 탐욕스러운 통치자들은 고난을 만듭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된 종류의 일을 추구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복을 받지만, 부를 위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는 다양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정과 정의를 위한 지혜라고 부르는 29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사물을 올바른 시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을 거부하면 해를 입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시정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상처를 받습니다.

정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반면, 거짓, 탈미트 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람들만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혜는 평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우리가 이전에 접어들었던 모티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화합하고 어리석은 자는 화를 내며 조소하리라.

살인자는 혐오스러운 사람들이다. 현명한 사람은 구원을 추구할 것이다. 통치자의 모티브로 돌아갑니다.

거짓과 거짓을 깨닫지 못하는 통치자는 결국 거짓말쟁이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통치자들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게 됩니다. 누군가가 억압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억압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군가가 수단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경향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안전한 왕국을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항상 수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수정이 상당히 가혹해야 하며 어쩌면 강압적일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막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제적인 물리적 강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령과 공격에 관계없이 적절해야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강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강제로 끝나게 되는데, 이는 당신이 강제로 감옥에 갇히거나 다른 어떤 것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나는 영어표준역(English Standard Version) 번역을 위한 신명기 주석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가장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 완전히 반항적이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는 혼자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신명기는 이에 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아이가 부모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공동체 개입이 되며, 부모가 아이를 공동체로 데리고 가서 적절한 경계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제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과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 모두 시편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지시의 일부라는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징계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과 신뢰는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화를 낼 것입니다.

교만은 추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흠친 물건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토라에는 강한 자에 대한 두려움이 올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은 사물에 대해 매우 다르게 느낍니다.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태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매우 악한 행실을 나타내는 의로운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갈등을 겪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다양한 관찰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지 않은 악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기 위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생활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평화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17회기 '문명화된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잠언 27:23-29.27.